민주통합 시·도당위원장 선출 추대냐 경선이냐

지역 국회의원들 미묘한 기류

광주 강기정·장병완, 전남 우윤근·배기운 거론

"지역 정치권 역동성 강화 위해 경선" 주장도

오는 22일로 예정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경선'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추대' 형식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아닌 추대로 시도당 위원장이 정해진다면 오히려 내부 역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내놓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 문제를 놓고 추대 및 경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광주시당 위원장은 3선의 강기정 의원(북 갑)과 재선의 장병완 의원(남구)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원 경선보다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동의에 의한 추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를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소모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은 "지난번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었느냐"며 "경선보다는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선의 장병완 의원보다는 3선의 강기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며 "이러한 의사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6·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과 시당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동철-강기정'의 '역할분담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역학분담론은 처음 듣는 소리며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상호간에 서로 조정하고 협력,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 의원 측은 "시당위원장에 관심은 있으나 강기정 의원 추대 움직임이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대보다는 경선이 원칙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내부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선으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관리형 인사를 광주시당위원장에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3선의 우윤근 의원이 추대되는 듯 했으나 재선의 배기운 당선자가 도전 의사를 나타내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으라는 권유가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배기운 당선자가 도전 의사를 보이면서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 당선자는 "주변에서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전남 국회의원들과 상의, 2~3일 내에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지원(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출마 선언

"지역·계파정치 깨겠다"

"박근혜, 킹메이커 역할해야"

이재오의원 내일 출마 선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8일 서울대 경영대 SK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8일 서울대 경영대 SK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의 구태의연한 틀을 부수는 일을 시작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줄세우기와 세력간 다툼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세력간·지역 간 싸움이 아닌, 뺏고 빼앗기는 전쟁 같은 싸움이 아닌, 선거에 패자가 되더라도 떨 필요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틀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역·이념·계파 구도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킹메이커(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표께 제의한다. 지난 40년간 이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을 깨는 데 역할해달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여는 디딤돌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대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대선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박 전 대표에게 '킹 메이커 역할'을 주문한 것이 청와대의 의중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함 속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중도 성향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잠룡인 정세균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이런 뜻(지역·이념·계파 구도 해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구주료 친이계 좌장인 5선의 이재오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인천 방문을 끝으로 보름간의 민생투어를 마친 이 의원은 최근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합리적 당 운영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각을 세워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혼전 양상

남경필·이주영·이한구 후보 막판까지 득표전 치열

1차 과반득표자 나오기 어려워 2차 결선투표 예고

새누리당 19대 첫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안개 속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2차 결선투표까지 예고됐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8일 당내 쇄신파의 지지를 받는 남경필 의원과 친박계 중립 성향의 이주영 의원, 친박계 핵심의 이한구 의원은 19대 국회 150명의 당선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득표전에 열을 올렸다.

남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쇄신파 대표가 특히 중립적인 대표가 필요하다는 건 당심도 아니고 박심도 아닌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150명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중단 없는 약속 실천'만이 대선승리의 첩경"이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구축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주축으로 하는 정강·정책의 전면 개정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지 문자를 보내며 표심을 확보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대선까지 상황을 잘 관리하려면 이슈 선점이 중요하다. 야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전문가로서 콘텐츠가 풍부한 내가 바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문자와 전화 및 만남 등을 통한 지지를 호소했다.

당 내부에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19대 국회 원구성 협의 등을 펼쳐야 하는 만큼 계파를 초월한 인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민주통합당이 내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공약'에서 "19대 국회 개원 즉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서 내년 어버이날에는 국민이 휴일이라는 여유로움 속에서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전체 노인 인구의 8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틀니 급여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김명진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실 정무담당 비서실장직에 김명진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보·정무기획 행정관, 박원순 서울시장 특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2010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초 민주통합당 제19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 남구 국민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병완 후보에게 패하고도 유권자들에게 "성원에 감사하다"며 새벽 출근 인사를 계속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www.yjcdrive.co.kr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교재무료 배부
- 셔틀버스 운행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주| 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